

02

건강을 파는 기업, 다니스코



하루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세계 최대 식품소재 기업

-

다니스코는 식품을 통해 하루에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세계 최대 식품소재 기업입니다. 187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다니스코 슈가(Danisco Sugar)란 회사로 설립된 이래 전세계에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소재인 자일리톨의 3/4, 치즈와 요구르트에 사용되는 유산균의 2/3, 식품에 사용되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1/2,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유화제의 1/3,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유화안정제의 1/2, 젤리와 잼에 쓰이는 펙틴의 1/3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일리톨, 헤이즐넛 향, 식이섬유, 투명한 맥주용 호프 등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다니스코는 덴마크, 핀란드, 미국 등 전세계 25개국의 생산기지와 120여 개국 지사에서 7,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위한 기업윤리

-

다니스코는 “첫째 건강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바람을 만족시킨다. 둘째 전 세계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된다.”는 경영원칙을 2005년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식품 및 식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니스코는 제품 안전성(Product Safety), 친환경 윤리(Environmental Ethics), 사회적 책임(Social Issues)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다니스코의 최고 경영진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니스코의 안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치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라고 다니스코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스코의 전 직원은 식품산업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구입하여 먹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열의를 설명합니다. 다니스코의 이러한 사명의식은 최근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식품’을 평가하는 한국에서 기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제 알레르기 프로그램 적용

-

전 세계 모든 다니스코 공장들은 국제 알레르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원료사 입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포장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프로젝트 진행

-

‘동물복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건강한 식품소재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서 (positioning paper)를 발행,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임상실험을 지속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실험 자체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동물보호를 위한 다니스코의 투명성과 환경윤리의 기준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대책마련으로

기업시민의 역할 수행

-

다니스코의 핀란드 자일리톨은 옥수수로 만드는 자일리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핀란드 자일리톨을 이용하면 옥수수로 만드는 자일리톨에 비해 Kg당 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 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친환경적 방법과 자원재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자일리톨 생산공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니스코는 2007년 UN Global Compact ‘Caring for Climate’에 참여한 이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대책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회의(COP15)를 앞두고 열린 사전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역설할 뿐만 아니라 다니스코의 사업모델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책임감 있는 활용

-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식품소재를 만들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다니스코의 방침이며, 다니스코의 모든 제품은 각국의 모든 안전요구사항과 규제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다니스코의 사회공헌활동 인증 및 수상

-

다니스코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란 기업의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측면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또한 다니스코 그린스테드(Danisco Grindsted) 공장은 덴마크 환경NGO로부터 환경인증(green diploma)을, 벨기에의 다니스코 브르헤(Danisco Brugge) 공장은 당국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니스코는 식품의 맛과 영양, 안전성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일리톨, 한국인의 충치개수를 줄이다

- OECD국가 중 충치보유율이 가장 높았던 한국에 자일리톨이 보급된 이래 충치보유율이 3.3개에서 2.16개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는 자일리톨의 충치예방에 대한 기능성 효과와 함께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스코 코리아가 펼친 구강 보건 캠페인 중 '예쁜 찻니 콘테스트'는 엄마의 충치가 아이에게 전염된다는 충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편중된 건강캠페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구남구보건소와 함께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비인기 스포츠 후원과 녹색의 기적(Green miracle)

- 놀라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다니스코 코리아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철인3종 경기 아시아 최고기록 보유자인 박병훈 선수와 후원계약을 맺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병훈 선수와 함께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녹색의 기적(Green miracle)'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